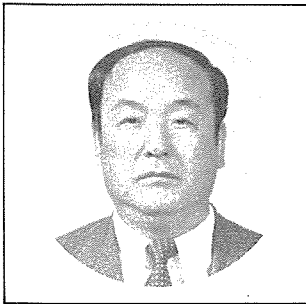


□ 世界的화제 「101」毛髮再生精개발자 방문기

“임상실험 못거쳐 아직 공식藥品 취급안돼”



許 埴
(大韓火藥技術學會長)

일본에서는 모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中國 관광여행이 있는가 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韓人社會에 가보면 오래전부터 中國製 「101」발모제가 한병에 100달러씩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대머리에게는 지대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랍 中國科學技術協會 초청으로 2주간 中國의 여러 지방을 순방할 기회가 있었다. 기간중 북경에 체류할 기회가 있었으며 초청자 측의 알선으로 「101」毛髮再生精개발자인 趙章光 漢醫을 만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趙선생으로부터 모발재생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나의 대머리에 대한 진찰도 받았으며, 직접 「101」발모제도 살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발모제에 대한 世人의 관심도 높고 하여 趙선생과의 대화를 요약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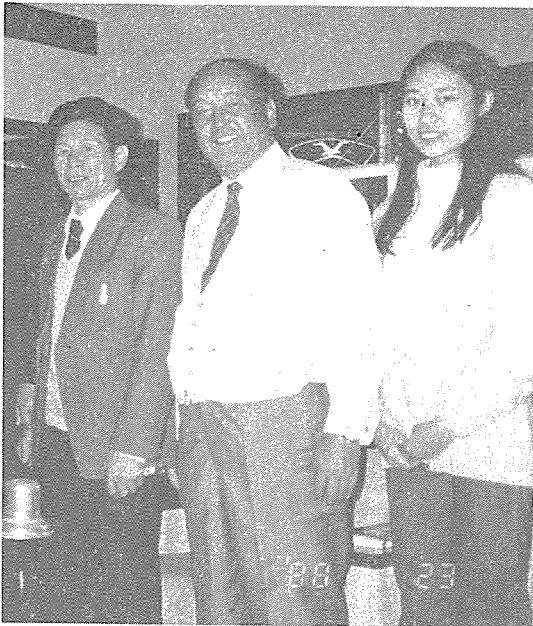
筆者：나는 11세때 圓形脫毛症으로 약 1년간 치료끝에 완치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韓國戰爭을 만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주간에 걸쳐 피나길에 고생했던 때가 있습니다. 때마침 한여름이라 땀이 많이나 하루에도 수차 세수를 해야 했고, 세수비누 빨래비누 가리지 않고 닦치는대로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후 전쟁도 끝나고 안정이 되고 나니 부분적으로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빠져서 2~3년 사이에 지금의 상태로 반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참고 하시어 진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趙章光：선생의 경우는 脂漏性脫毛症인데 주로 노인층에 흔히 나타나는 증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101」발모제는 원칙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 8개월정도 계속 바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1A」 여덟병이 필요하겠읍니다.

기왕 「101」발모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발모제는 「101」「101A」「101B」가 있습니다. 「101」은 圓形脫毛症과 全脫毛症에 효과가 있고, 「101B」는 抗脫, 止痒, 育毛脫毛방지용에 효과가 있음



▲우로부터 女医者, 筆者, 趙章光

니다.

그런데 탈모증의 원인을 보면 정신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신적인 쇼크는 탈모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의 탈모증환자의 대부분은 氣虛, 血虛 등에서 연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洋醫學에서의 탈모증은 毛襄의 위축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의 치료방법은 毛襄의 세포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있습니다.

筆者: 어제 시내 약국에 들렀더니 당신의 이름을 딴 「章光牌101」외에도 다른 「101」이 있었는데 나에게 준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趙章光: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01 상표에는 章光牌와 象東牌의 2종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章光牌는 精製한 것으로 輸出品이고, 象東牌는 단순히제조·포장한 것으로 國內市販用입니다만 主成分은 동일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先生나라의 유명한 人蔘을 예를 들자면 品質이 좋은 것은 前者에 쓰이고 質이 좀 나쁜 것은 後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단지 환자의 경제상태 또는 國內生活水準을 고려한 것 뿐입니다.

筆者: 中國과 日本에서는 최근 「101」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歐美 여러 나라에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趙章光: 歐美 5개국에서 48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좋은 치료효과를 보고 있다는 감사의 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1988년 4월 제16회 제네바 國際發明新技術展覽會에서 오스카發明賞으로 金메달을 받았습니다.

筆者: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01」포장에 왜 藥品表示가 없으며 日本에서 販賣禁止가 되어 있습니까?

趙章光: 저로서는 漢醫師가 만든 약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974년부터 皮膚專門漢醫로서 탈모증치료에 종사하면서 今日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中醫書의 處方을 기본으로 하여 中藥配伍를 모색하여 저의 子息과 89세의 父親에게 처음 임상시험 하였던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藥物檢定所에 신청을 하여 지정되는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의 臨床報告와 10항목의 약료시험을 거쳐야 하며 소요기간은 3년을 요하고 거기다 處方內容을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상품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현실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않고 있으며 현재 화장품으로서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日本의 販賣禁止도 그러한데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筆者: 「101」 발모제로 치료한 환자중에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趙章光: 日本人 환자 한사람이 101을 사용후 머리에 斑狀의 發疹이 생겨 日本新聞에서 알레르기성 반응으로 크게 보도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101」성분중에 活血化癥成分이 있어 일부 局所刺戟으로 머리 피부가 發赤形象이 나온 경우로서 이 환자는 나중에 발모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日本은 자주 잡니다만 韓國은 한번도 가본적이 없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筆者: 8개월내에 내머리에 발모가 되면 내가 초청하지요. 歸國하는대로 우리나라에도 韓醫師會가 있으니 소개해 드리지요.